2017 년 1 월 29 일 "찾아오신 예수님(18) 양의 문"(요 10:1-~10)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르신 것은 9 장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양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로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돌보아 주십니다.

[1] 양의 문

교부 크리소스톰(4 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갈 때는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 하고, 우리를 돌보실 때는 목자라 칭하신다"

3 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은 각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양의 개인적 특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까요? 알아들으면서도 못 듣는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9 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이유는 목자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을 못 받았든지, 또는 그분을 통하여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 절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참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취향과 방식대로 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치명적 원인은 자신의 욕구와 방식대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진정한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문이라는 뜻은 입구인 동시에 출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로 <u>들어가서</u> 좋은 목초를 얻고, 그것으로 생기는 힘으로 삶의 현장으로 <u>나아가</u> 생명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꼴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삶의 현실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비춰진) 사람의 마음의 깊은 끝은 닫혀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욕망의 굴곡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삶의 표면 위에서 쉽게 드러나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 12:3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로부터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끝을 알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꼴을 먹이시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간절한 염원을 드릴 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곳을 touch down 하고 생명의 꼴을 맛 보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어떤 현장으로 나갔을 때 번번이 찾아오는 욕망과 유혹과 시련의 펀치를 맞받아 칠 준비가 됩니다.

시 23:1-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 세상 겉표면에 존재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엄청난 시련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의 힘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 생명의 길입니다.

10 절의 말씀이 뜻하는 풍성한 생명의 길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보실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길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얻는 생명입니다. 오늘은 10 절에서 언급하는 선한 목자의 반대쪽에 있는 도둑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9 장에서 소경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소외시키고 파멸시키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아야 할 영생을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의 존재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주기보다 그가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따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인간적/세상적 기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의 기준으로 보고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타인과 자신의 존재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문화에서 지배합니다. 예측되는 결과는 이긴 자든지 진 자든지 그의 내면에는 자기 비하와 삶에 대한 회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꼴을 먹고 자라야 할 존재의 소중함을 끝내 깨우치지 못했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의 문 되심을 잘 이해하고 삶의 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꼴을 매일 공급받는 선하신 목자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꼴(9 절)을 얻으며 사십니까? 꼴은 예수님을 통하여 삶과 전인격에 도움이 되는 하늘의 자원(축복)을 말합니다.
2. 신앙의 차원에서는 종교적 형식 차원에서 얻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랑, 기쁨, 자유 등으로 나타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진정한 변화)입니다(10 절).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간 동안 어떤 생명의 모습으로 사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당신을 통해 들어가며 나가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문으로 여기는 삶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읽으신 교안 [2]를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요.